

특별기고

입춘대길(立春大吉) 건양다경(建陽多慶)

봄이 오고 있습니다. 오는 봄을 사뭇하듯 먼저 꽃샘추위가 심술을 부리곤 합니다. 해마다 이때쯤이면 입춘으로 예로부터 '입춘대길(立春大吉) 건양다경(建陽多慶)'이라는 입춘첩(立春帖)을 대문에 써 붙입니다. 봄을 맞아 크게 길하고 밝은 기운을 받아들여 경사스러운 일이 많기를 기원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평범한 인생의 소망을 담은 소박한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진정한 봄을 기다리는 구도자(求道者)의 입장에서 '입춘대길 건양다경'의 뜻을 풀어 보고자 합니다.

하늘의 사람 세 분이 오셔서 하나가 되어 태양과 같은 밝음을 연다

설 립(立)과 세운 건(建)은 대구(對句)가 되어 세운다는 의미이며 중심어구인 봄 춘(春)과 별 양(陽)에서 춘(春)은 삼인일(三人日)입니다. 하늘의 사람 세 분이 오셔서 하나가 되어 태양과 같은 밝음을 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삼팔일(三八日)은 봄의 주인공이 나오는 시기를 암시하는 것으로, 봄의 주인공은 춘운 겨울도 없고 더운 여름도 없는 사시장춘(四時長春)의 신천지(新天地)를 여는 개벽장(開闢長)입니다.

별 양(陽)은 춘(春)자와 대구가 되어 봄 별과 같이 따뜻하고 평화로운 세상이라는 의미이며 또 양은 양태음되(陽來陰覆)의 양도로 하나님의 불사영생의 대도이며 이 번에는 하나님이 마귀를 이겨 양도(陽道)를 펴는 세상이 옵니다. 반면 마귀가 생명을 썩히고 죽이는 음도(陰道)를 물러갑니다. 그리고 대길(大吉)은 다경(多慶)과 대구가 되어 크게 길하며 경사스러운 일이 많음을 말합니다. 종합하면 하늘의 사람 세 분이 오셔서 하나가 되어 태양과 같은 밝은 세상, 지상천국을 회복하니 크게 길하고 경사스러운 일이 많다.라는 의미로서 그런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



음을 표현한 글입니다.

마귀에 의해 파괴된(선악과 사건) 천국을 회복하고자 하나님이 궁궁(弓弓)으로 오시고 을을(乙乙)이 되는 일남일녀(아담, 해와)를 낳아 양육합니다. 궁궁과 일남일녀가 세 분이 되며 일남 속에서 세 분이 하나가 되어 삼위일체를 이룹니다. 그런즉 삼위일체를 이룬 일남(一男)이 곧 '살려주는 영으로서의 마지막 아담(고전15:45)에 부합하는 인류의 구세주입니다.

궁궁의 하나님(72궁 목운)으로 감로해인을 가지고 와서 유불선 삼도합일의 도를 을을(81궁 금운 曹熙星)에게 전하다

삼위일체 하나님, 삼신일체 상제님이 바로 천당 극락 그 자체입니다. 삼인동행칠십이(三人同行七十二)라는 표현도 같은 의미입니다. 동행은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간다는 말이며 목적지는 천당 극락입니다. 칠십이(七十二)는 궁궁의 하나님을, 육도삼락에서 72궁 목운입니다. 을을이 궁궁과 하나가 되어 궁궁을을이 되면 81궁 금운으로 소위 여자선신(女子仙神)이 됩니다. 여자선신이란 세상 여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엄마를 뜻합니다. 이렇게 여자(인류의 엄마)는 궁궁을을의 다른 표현입니다. 여(女)는 궁궁, 자(子)는 을을로 구분되

어 있을 때, 궁궁은 여(女) 즉 영적인 동정녀의 신분으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낳는 수고를 하는 시기입니다. 해산의 수고를 완수하신 다음에 영모님(영적 동정녀 목운)이 "이 할미가 며느리한테 살림을 다 맡겼어"라고 가장 신앙촌에서 선포하셨는데, 이는 삼신으로 일체가 된 궁궁을을로서의 여자(며느리, 아담 이간자)가 나왔다는 것을 웅변한 것입니다.

삼신으로 일체가 된 여자(며느리, 아담 이간자)는 궁궁을을로서 마지막 천지개벽 심판의 주인공입니다. 격암유록(갑을가)에서는 '삼림출세천수박'이라고 표현합니다. 삼(森)은 감(甘)나무 원체와 두 가지를 말합니다. 립(林)은 세 분 중 한 분 즉 여인(해와 이간자)이라 세상에 드러나 천지공사를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육도삼락의 목운으로 오신 궁궁과 금운으로 오신 을을의 두 분이 천지공사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수(天數)는 삼수(三數)입니다. 박(木)은 木으로 감(甘)나무의 사람이며 감(甘)나무 원체(하나님)로 오신 사람(朴泰翁)을 말합니다. 궁궁의 하나님(72궁 목운)으로 감로해인을 가지고 와서 유불선 삼도합일의 도를 을을(81궁 금운 曹熙星)에게 전하니(전도관), 을을이 궁궁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이어 받게 되어 궁궁을을이 되니 감로해인이 완성되어 마귀를 죽여

지상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천지개벽은 상제(하나님)가 하는 것이 아니고 상제의 도통줄을 이어받은 대두목(정도령)이 한다

감로해인으로 마귀를 다 죽이면 더 이상 이 땅에는 죽음이 없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이시야26:19). 또한 궁궁은 활입니다. 을을은 화살(矢)이 됩니다. 활(궁)은 화살이 없으면 활의 목적(천국회복)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화살(을을)은 활이 없으면 무용지물에 불과합니다. 활과 화살이 만나 하나가 되어야 완전체가 되어 활로 화살을 쏘아 적(마귀)을 죽일 수 있습니다. 마귀가 죽으면 그대로 천국이 됩니다. 활과 화살이 합하면 궁시(弓矢) 즉 궁궁을을이 되니 곧 궁을 삼승 정도령이 됩니다.

천지개벽과 심판은 궁궁의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고 궁궁과 하나가 된 을을 즉 궁궁을을이 천지개벽과 심판의 주인공이 됩니다. 마귀를 이기신 하나님이 백보좌에 좌정하면 궁궁을을이 됩니다. 마귀를 이기신 하나님(궁궁)과 백보좌(을을)가 하나가 됩니다. 백보좌 심판은 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강증산 선생이 말씀하시기를, 천지개벽은 상제(하나님)가 하는 것이 아니고 상제가 도통줄을 대두목(정도령)에게 내려주어서 대두목(정도령)이 한다고 하였던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성경에서도 심판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한다고 하였습니다(요한복음 5:22).

봄이 오고 있습니다. 봄을 사뭇하듯 꽃샘추위를 잘 견디고 이겨야 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청아한 곡조가 금 거문고 소리를 타고 흐르는 지상천국에서 웃으며 봄을 만끽하는 빛나는 존재가 됩니다.*

고서연구회 박명하 010-3912-5963 myunghpark23@naver.com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250>
“영생의 확신을 가져라”

어린 아이들이 왜 즐겁게 사는지 아는가? 아이들은 죽음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마치 영원히 살 것 같은 기분으로 살기 때문에 마음에 그늘이 없다.

마음에 그늘이 없으면 즐겁고 기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도 승리자는 살고 실패자는 죽는 것이다. 영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나와 더불어

어 싸워서 이겨야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지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이 싸움은 하나님과 마귀와의 싸움을 말하는 것이다. 승리자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패자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 것이다. 이왕이면 승리자의 한평생을 살아 보자는 것이다.*

이기는 삶

긍정을 말하라

사람은 매사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한다. 어떤 주제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이견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과 이견 된다고 생각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머릿속에는 안된다는 이유만 가득 들어찬다. 반면에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령 1%의 가능성밖에 없다고 해도 붙잡고 늘어진다. 1%의 가능성도 없이 말을 해본 사람은 경험이 남는다.

말할 수 없이 힘든 시기에 자기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긍정적 사고다. 역경이 나를 고난에 빠뜨릴 수는 있지만, 그 고난과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기어오르면 자신이 목표로 하는 일을 이루어내었을 때의 성취감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정도의 힘을 발휘한다. 그러므로 항상 실수로부터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경주에서 빨리

말할 수 없이 힘든 시기에 자기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긍정적 사고다. 역경이 나를 고난에 빠뜨릴 수는 있지만, 그 고난과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기어오르면 자신이 목표로 하는 일을 이루어내었을 때의 성취감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정도의 힘을 발휘한다. 그러므로 항상 실수로부터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경주에서 빨리

말할 수 없이 힘든 시기에 자기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긍정적 사고다. 역경이 나를 고난에 빠뜨릴 수는 있지만, 그 고난과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기어오르면 자신이 목표로 하는 일을 이루어내었을 때의 성취감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정도의 힘을 발휘한다. 그러므로 항상 실수로부터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경주에서 빨리

쉽게 하는 말이지만 평소에는 말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아 짜증 나. 난 맨날 이 모양이야. 이런 말을 자주하면 그 말이 청각기관을 거쳐 뇌에 입력돼버린다. 그렇게 되면 독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결국 짜증이 나를 지배하는 상태가 되어 버린다. 그래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몹시 과학적이다. 말에는 뼈에 새길 만큼 강하게 박히는 각인(烙印)효과가 있다. 늘 하는 말이 뇌에 강하게 박혀서 실제 그렇게 되는 것이다. 짜증 섞인 말 대신, '사랑해', '고마워', '즐거워' 같은 좋은 말을 습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나의 삶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말이다.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면 그것이 신체의 모든 세포로 전달되어 바깥으로 퍼진다. 이에 따라 멀리는 3미터 떨어진 사람에게도 감정이 전달된다. 리더가 매일 사용하는 언어와 표정이 팀원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된다는 말이다. 그것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무관심이든, 열정적이든, 냉담함이든, 목적의식이든 저절로 알려지게 된다.

긍정은 긍정의 결과를 낳고 부정의 부정의 결과를 가져온다. 긍정도 부정도 모두 전염성이 강하다. 구성원들은 리더의 표정이나 말에 대하여 그대로 반응한다. 리더가 늘 긍정, 유쾌, 낙관, 도전, 희망과 같은 태도와 표정을 유지하면 그대로 조직의 성과로 이어진다. 반면에 팀원 100명 중 한 사람의 부정적인 말과 행동이 전체의 분위기를 망칠 수 있다는 것 또한 명심해야 한다. 썩은 달걀질인 뉴런의 재배선이 일어난다. 감사는 기본에 영향을 주면서 청의성을 향상시킨다. 감사는 단단히 잠긴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

격암유록신해설 저자와의 인터뷰

대화당 박명하 선생님을 모시고 여러 말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선생님의 저서 『격암유록신해설』의 제목에 새로운 신(新)자를 붙이셨군요. 제가 알기로는 격암유록을 여러 분들이 해설해서 출판했던데요. 격암유록 해설이 다 비슷비슷한 거 아닌가

요? 선생님의 책은 그분들의 책과 어떤 점이 다른가요? 그리고 격암유록 신해설을 출간한 특별한 계기라도 있는지요?

[답변]

격암유록은 단순히 한문과 동양철학을 안다고 풀이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천지비밀을 은두장미, 상하차관, 주역, 파자 이 두 등을 이용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에 세

상 사람이 쉽게 알 수 없습니다. 격암유록의 주인공인 정도령(미륵불)을 직접 만나서 불사영생의 새 세상을 여는 진리의 말씀을 들어보고 또한 정도령의 지표가 되는 감로해인의 향기를 직접 맡아 본 경험이 있어야 격암유록을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격암유록의 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없다고 하였고, 털끝만한 차이도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격암유록 신해설을 펴낸 계기가 다 시기를 맞추어 책을 출간한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혼란스

러운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지 않아요? 이를 계기로 전 세계 인류가 모든 면에서 총체적으로 대 변화를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한 전염병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천지의 도수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자신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전하는 길을 찾지 않으면 안된다는 겁니다. 격암유록에는 '선입자 망, 중입자 생, 말입자 사'라고 합니다. 중입에 들어야 살아남 수 있다고 했습니다.(하락)*

출처: <https://youtu.be/nW8JAC2fes>

정도령이 면절대로 풀수 없는 신비한 예언서

격암유록 신해설 상권 / 하권

격암 남사고 선생,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도 예언!!
감로해인의 주인공 정도령을 만나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 불확실!!!

전국 서점 절찬리 판매중 ...역학 예언 베스트셀러
신이 이끄는 자 이 책을 만나리라!!!!

유튜브 진지아롱TV

